

운수종사자들 저상버스 휠체어 이용 탑승체험

전주시 5개 회사 교통약자 이용불편 최소화위해... 올해 17대 증차계획

전주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장애인 등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이해하기 위한 탑승체험에 나섰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소재 5개 운수회사 운수종사자 및 회사 임직원들은 4월과 5월 두 달간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한 저상버스 탑승 체험을 실시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경사판을 이용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가 승하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손꼽힌다. 저상버스 운전자는 정차 시 장애인의 승·하차 여부를 살피고 휠체어 탑승에 필요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저상버스 탑승 체험은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저상버스 승·하차를 직접 체험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운수업계 종사자들은 교통약

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 승하차시 배려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에 탑승,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08년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노선에 101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7대의 저상버스를 증차하고 내년에는 4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저상버스 122대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청원 시내버스·택시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매주 2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는 매일 1회 이상 직접 탑승해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저상버스 운행 노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초에는 저상버스 장애인관련 시설점검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자체교육 통해 장애인특별 고객 응대요령 휠체어경사판과 고정장치 안전벨트 착용법 등 안전조치를 강



전주시는 올해 17대의 저상버스를 증차하고 내년에는 4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저상버스 122대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했다. 시는 대중교통에 서비스 실태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자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동잡이식 의자 개발과 장애인 탑승시 자동안내시스템 등 자동차 제작사 착안사항 등을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제작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간부공무원 위주로 시내버스 탑승체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버스업체와 협력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버스타기 즐거운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김수나 작가 한국 미술대전 대상

문화 부분에서 군산 최초 수상

군산에서 최초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영광의 주인공은 군산에서 문화 및 서예 증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수나(47·여)씨.

김수나 작가는 최근 개최된 '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문화 부분 대상수상자로 결정돼 다음 달 2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상을 받는다.

김 작가는 실물을 영상사실 만큼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강렬하고 절제된 붓 터치로 먹의 다양한 색감과 생동감 넘치는 필선을 화폭에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김수나 작가는 "개인의 기쁨을 떠나 문화예술의 도시 군산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리 조상의 고귀한 기쁨과 혼이 서린 문화와 서예 창작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이 분야의 저변확대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 전담교수인 김수나 작가는 원광대학교 서예과를 졸업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입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입선, 추사 회화대회 특·입선, 5·18 광주회화대회특선, 2016 서예대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2008 한국의 빛 (이태리 밀라노 초대전), 2009 아트페어전 (소리문화의 전당), '한·중교류전 (2011~2012)'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노숙인 시설 청소봉사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연자)은 8일 평화동 소재 노숙인 시설 일꾼 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20여명은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노숙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금자리인 일꾼센터에서 주방 및 숙소 청소, 식기 소독 등의 봉사활동을 가졌다.

해바라기봉사단 조연자 회장은 "노숙인들의 동지인 이곳 일꾼 센터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했다"며 "000"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군산시 옥산면, 청암산 입구 특색있는 공간 조성

군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이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 옥산면(면장 심문태)은 8일 청암산 입구에 비탈계와 폐 보도블록을 활용한 '구슬피길 옥산' 문구를 만들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청암산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특색 공간 조성은 옥산면 직원들이 직접 구상하고 손수 페인트칠해 조성한 것으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제작된 사례이다.

심문태 옥산면장은 "청암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옥산면 직원들이 손수 제작하고 조성해 더 뜻 깊다"고 말했다. 앞선 7일 월명동(동장 이경표)은 여름철을 맞아 주요 간선도로변에 국화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월명동 직원들은 일일초, 메리골드 3,000여 본을 가로변에 식재하며 구슬핍을 즐겼다.

직원들은 "뜨거운 햇볕에 꽃 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활짝 핀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대 간호대 석·박사 과정생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 간호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간호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간호대학 경쟁력 향상에 써달라며 4,7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간호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이같이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후배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물려주고, 대학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십시일반 기금을 조성했고 교수들 역시 힘을 보태며 많은 기탁금이 모아질 수 있었다. 이남호 총장은 "최근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를 기원하는 기금이 담지하면서 우리대학민의 색깔 있는 인재 양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무주경찰서 112타격대, 군 위탁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112타격대는 지난 7일 경찰서 강당에서 육군 제35사단 무주대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차전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12타격대 초동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전기 사용요령과 독도법 등을 몸소 체험하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차전부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도연 서장은 "군과 경찰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성기자

전주 동산동, 우리동네 친나눔 가게 제6호점 탄생

동산동 (동장 정용환)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반찬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동네 친나눔 가게'는 2015년 제호점을 시작으로 제6호점이 행복 나눔의 문을 열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동네 친나눔 가게'는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및 반찬가게에서 5개대씩 결연을 맺고 지난 6개월 동안 총 30세대에 매주 1회씩 후원하고 있다.

정용환 동산동장은 "앞으로도 밑반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후원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나눔 문화형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동산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장수군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 토목동계곡 환경정화활동

장수군 계북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근)는 최근 피서철을 앞두고 지역 대표적 관광지 토목동 계곡 일대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과 면사무소 직원,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은 토목동 계곡과 장수터유산 등산로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오물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특히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잃어버린 장수 터유산 이름 찾기 운동과 병행,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종근 위원장은 "잘기 좋은 청정 계북면을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여성안전 간담회 개최

서학파출소(경감 김일철)는 8일 여성안전 특별차안대체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범죄취약요소 국민제보 앱 및 112신고 활용홍보, 관내 물적·인적 취약요인 수렴, 여성인심귀갓길 적정여부 및 매주 1회 협력단체 합동순찰실시 등 여성차안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했다.

김일철 서학파출소장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개선활동으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우)5632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준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85-418	종원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8-6998
삼천지사 010-2333-499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22-947	송천지사 255-204	완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8-304
호지사 010-6855-9935	팔복지사 258-6884	남양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8-3387
	익산지사 859-9923	순창지사 638-0444	장수지사 010-3822-819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3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